

논문 29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분석

이 중 범*정 철 영**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전 생애 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고 인지적 발달(cognitive development),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 그리고 정서적 발달(emotional development) 등에 있어서 환경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Stright, Neitzel, Sears, Hoke-sinex, 2001),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 김재은(1997)은 부모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맞이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경험이며 동일시의 대상이고, 또 대인관계나 행동양식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관계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보다 '관계'를 중요시하고,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아동기부터 성인까지의 심리적 발달에 중핵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련 변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를 환상기(fantasy stage)에서 벗어나 탐색기(exploration stage)로 접어드는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하기 위한 탐색 및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개인적 진로의사결정과 계획에 있어서 체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er, 1996; 정철영 외, 2005). 이러한 진로발달시기에 가족변인이 미치는 영향 또한 크며, 많은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Whiston & Keller, 2004).

*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이처럼,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진로발달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중학생 시기를 비롯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제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최수정, 2005). 이는 지능·학업능력·인지양식·자아개념·자기 존중감·통제 소재·의사결정양식과 같은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이 진로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변인과 같은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 학생의 진로발달에 가족관련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관련 변인들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가족관련 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가족관련 변인과 진로포부(교육포부·직업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중학생의 가족관련 변인과 진로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관련변인

가족변인은 심리학, 사회학, 아동·가족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변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족변인은 가족관계, 가족문제, 가족기능, 적응 등 가족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러한 가족변인은 크게 구조적 특징(structure feature)과 과정적 특징(process feature)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특징(structure feature)은 가족의 크기, 가족의 형태, 자녀의 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가족의 구조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을 말하며, 물리적 특징(physical feature)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정적 특징(process feature)은 가족의 상호교류, 관계적 요소, 부모의 기대, 의사소통 수준 등 가족이 서로 상호 교류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을 말하며, 심리적 특징(psychological feature)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음은 가족변인 중 과정적 특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변인을 설명한 것이다.

가.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

부모와의 애착(parental attachment)은 자녀와 부모간의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Bowlby를 위시한 애착 이론가들은 자존감(self-worth)은 주된 양육자(primary caregiver)와의 관계에서 싹튼 애착을 토대로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자녀간의 유대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것이며, 자녀에게 내재화된 부모의 상은 심지어 부모 사망으로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한 개인에게 영속적으로 존재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Ainsworth, 1989)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은 불투명한 인생의 전환기, 특히 진로탐색 등과 관련된 성인으로서의 전환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Lopez, 1993).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기반이 구축되었을 때, 부모는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적극적 탐색을 격려해줌으로써 성취경험을 증진시켜주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성취 경험은 자아 효능감에 주된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andura, 1977). 반면 부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된 경우 성장과정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녀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크나큰 불안에 압도된 나머지 진로 탐색 활동을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Guidano, 1987).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 지각이 최근에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적절한 애착 관계는 아동에게 외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지(home base)를 제공하며, 일생동안 다른 관계에 참여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을 발달시킴으로써 아동이 이후에도 지속된다. Lopez(1993)가 지적했듯이, 이 “작동모델”은 진로 결정 수행 같은 스트레스시기에 특히 활성화되기 쉽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Josselson, 1988). 청소년 분리의 정신 분석적 이론을 보완하여 개발된 심리적 독립 척도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기능적, 태도적, 갈등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갈등적 독립은 부모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과 불안감, 죄책감 등의 갈등이 없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체감 형성, 진로수행과 같은 행동을 잘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에서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Blustein(1997)과 O'Brien(1992)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독립이라는 변인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심리적 독립과 부모의 애착이라는 변인이 결합될 때 진로발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즉 안정된 애착기반(secure attachment base)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독립된 학생들이 진로발달에 많은 진전을 보인다는 것이다(최수정, 2005).

나.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 응집성의 개념은 가족체계 이론에 근거한 대표적 개념이다. 가족체계 이론에서 체계란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요소들 또는 단위들을 가진 실체로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의 복합체로 정의된다. 가족이란 신체적·심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을 모아 놓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적인 사회체계이다. 따라서 가족 체계적 접근 방법은 가족전체의 중요성을 전체로 하여 부분이나 개인과 전체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또한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기에 가족의 변화에 반응하는 융통성 정도, 가족의 지도력, 권력 및 훈육 등 가족성원간 상호작용의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이상길, 2004). Olson, Russel, Sparenkle(1983)은 적응성(adaptability)이란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 단계의 요구에 따라 그 가족 내부의 권력 구조, 역할 관계, 관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그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열에 따라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체적인 경우를 '경직(rigid)'으로 그 정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조(structure)'로 그 정도가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융통(flexible)'으로, 허용 정도가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경우를 '매우 융통 또는 혼란(very flexible or chaotic)'으로 분류하였다(이상길, 2002).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Olson 등(1983)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족응집성 정도를 서열화하여,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매우 연결(very connected)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매우 연결" 상태에서는 가족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성원들간의 유대감이 지나치게 높고 응집성이 매우 낮은 "과잉분리"상태에서는 가족성원들간의 유대감은 떨어진다.

다. 가족 갈등 및 역기능적 가족구조

가족이 주로 경험하는 갈등은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은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모간의 갈등은 부부갈등을 자녀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를 말한다(Davies & Cummings, 1994). 이러한 부모간 갈등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빈도, 강도, 해결, 내용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너무 빈번하고, 강도가 심하고,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부부와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충도는 기대와 요구, 견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소한 말다툼이나 폭력 등의 외현적인 것과 내

적 긴장감등과 같은 내면적인 것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재은, 1997).

역기능적 가족구조 모형은 Minuchin(1974)의 구조적 가족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가족 구조는 가족성원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조직화하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요소들이다. 기능적인 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경계가 분명하여, 변화하고 있는 내적(개인의 발전), 그리고 외적(환경)요구에 효율적으로 적응한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는 가족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극단적으로 분리된 것을 말한다. 가족의 역기능적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Lopez(1986)는 부모-자녀 과잉개입, 분리에 대한 불안, 부모-자녀 역할 전도, 부모불화로 보았다. 부모-자녀 과잉개입은 자녀가 자율적이지 못하게 하고 심리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후기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저해한다. 분리에 대한 불안은 많은 연구자들(Grotevant & Cooper, 1985, 1988; Kenny, 1994; Lopez, 1993)은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건강한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연합되어서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과 지각 및 위험 수행과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탐색 그리고 진로발달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이재창·김수리, 2001).

부모-자녀간의 역할 전도는, 초기 성인의 자녀가 부모의 행동(보호, 지지, 양육)을 채택하거나, 또는 부모가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확신을 구하며 다른 의존적인 행동에 개입하는 양상을 띤다. 부모간의 불화는, 부부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가족의 학생들은 양부모로부터의 갈등적인 독립이 더 낮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Lopez, 1989).

라.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구성하는 사회적 적응방법을 습득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원만한 성숙과 성격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다(이현숙·조한익, 2004).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론적 접근(dimensional Tradition) 방법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상반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 요인들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차원론적 접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상반되는 요인으로는 수용-거부, 지배-복종,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이 있다. Symonds(1949)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사례를 근거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자율적이면 자녀를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대하며, 자율·적대적인 부모는 방

임적인 태도를 보인다. 애정·통제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애정을 주지만 동시에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함으로써 보호적 관대·과잉보호적 특징을 지닌다. 통제·적대적인 부모는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종승과 오성심(1982)은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차원은 Schaefer(1959)의 이론에 따르는 것이며, 성취-비성취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요구하며, 끈기 있게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며, 합리-비합리 차원은 부모가 매사에 이유를 중시하고, 교육방침이 이성적이며,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말한다.

마. 가족 내 의사소통

가족 내의 의사소통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개념 중에 진로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은 ‘촉진적 의사소통’이다. 효과적인 촉진적인 의사소통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조력적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촉진적 의사소통은 Rogers와 Carkhuff 등이 효율적 상담을 위한 인간관계조건으로 제안한 공감적 이해, 존중, 솔직성,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박진채, 2004).

바. 부모의 포부 및 기대

포부(aspiration)는 개인이 자원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수준에서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포부 및 기대는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자녀의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 직업”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포부 및 기대 수준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포부 및 기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형성되며 자녀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이종범, 2005).

사. 가족의 지지

가족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지의 개념 및 내용은 다양하다. 초기에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 물질적 제공 등으로 대변되어왔지만,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 즉 지지유형의 경우, 연구의 초창기에는 단일한 유형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동

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단일차원으로 취급되어 왔던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최수정, 2005).

아. 가족의 권력구조

권력이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ability)이며 또한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의 의사결정능력이고, 권위는 공인된 힘(legitimated power), 즉 가족구성원들이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과 권위는 이렇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족에 있어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내의 권위란 어떤 가족성원이 다른 가족성원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 권력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Blood and Wolfe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족권력구조 모형은 Wolfe(1959)가 상대적 지위(The relative Authority)와 부부가 가족 내에서 공유하는 권위정도(The degree of shared Authority)의 두 차원에서 권력을 측정·분류했다. 이 모형에서는 가족의 권한을 의사결정권·대표권·관리권 등으로 나누어서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부부권위유형을 일치형, 자율형, 부우위형, 처우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최수정, 2005).

2.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발달 관련변인과의 관계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발달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물은 2개가 있는데, 먼저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고찰한 정혜정(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 내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응집성·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고 아버지의 직업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진로성숙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박진채(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진로결정 효능감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발달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 연구물은 국내보다 양적으로 많았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수정, 2005).

첫째, 진로발달 및 성숙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다양한 변인들이 골고루 사용되었다. 부모의 지지, 애착 및 심리적 독립, 원활한 의사소통,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 및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다만 Rosenthal & Hansen(1981), Dillard & Campbell(1981)은 어머니의 직업과 부모의 직업적 포부가 진로 성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진로흥미에 관련된 2편의 연구는 모두 Holland의 인성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Holland의 이론은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곧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행된 Mulis et al(1998)과 Turner & Lapan(2002)의 두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Mulis et al(1998)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 청소년의 진로흥미에 영향을 끼치지만, Turner & Lapan(2002)은 부모가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다른 직업으로 진로흥미를 전환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셋째, 청소년기의 진로탐색에 가족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보통 청소년기에는 개인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변인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진로포부 및 직업기대는 대부분의 연구가 애착 및 심리적 독립, 가족의 지지, 부모의 포부 및 기대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변인들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직업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진로포부 및 직업기대에서 사용된 변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련된 연구가 2편 존재하고 있다. O'Brien(1996), O'Brien & Fasinger(1993)의 연구가 어머니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III. 연구의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중학생 자료, 가구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문항은 <표 1>과 같다. 가족관련 변인은 구조적 특성변인(가정 결손 여부,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가족의 경제적 지위)과 과정적 특성변인(교육기대수준, 직업기대수준, 학생과의 의사소통 정보,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 학생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 학생의 진로관련 지지대상, 부모의 직업가치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 연구분석에 사용한 변인들

영역	세부영역	번호
가족관련변인	가정 결손 여부	가구 설문지 40번 문항
	아버지의 학력수준	가구 설문지 6번 문항
	어머니의 학력수준	가구 설문지 6번 문항
	가족의 경제적 지위	가구 설문지 75번 문항
	교육기대수준	가구 설문지 19번 문항
	직업기대수준	가구 설문지 23번 문항
	학생과의 의사소통 정도	가구 설문지 9번 문항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	중학생 설문지 43번 문항
	학생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	가구 설문지 24번 문항
	학생의 진로관련 지지대상	중학생 설문지 49-1번 문항
	부모의 직업가치관	가구 설문지 29번 문항
진로포부	학생의 교육포부	중학생 설문지 35번 문항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중학생 설문지 36번 문항
	학생의 직업포부	중학생 설문지 33-1번 문항
진로의식	자신의 특성 인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	중학생 설문지 50번(6개) 문항

한편, 학생의 진로포부는 학생의 교육포부,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학생의 진로의식은 자신의 특성(자아개념 · 능력 · 흥미 · 가치관) 인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된 중학생과 가구의 수는 1951명이고 중학생 중 남학생은 975명(50.0%)이었고 여학생은 976명(50.0%)이었다.

2.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포부와의 관계분석

가.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교육포부와의 관계 분석

먼저,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가정이 결손되지 않은 경우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박사'가 21.0%, '전문대학'이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이 결손된 경우 '4년제 대학'이 62.6%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이 19.2%, '고등학교 이하'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결손여부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포부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2>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분석

가정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비결손 가정	12 (0.7)	143 (8.1)	1112 (62.9)	131 (7.4)	371 (21.0)	1769 (100.0)
결손 가정	14 (7.7)	35 (19.2)	114 (62.6)	9 (4.9)	10 (5.5)	182 (100.0)
전체	26 (1.3)	178 (9.1)	1226 (62.8)	140 (7.2)	381 (19.5)	1951 (100.0)

df=4, $\chi^2=105.03^{**}$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가정이 결손되지 않은 경우 '4년제 대학'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이 9.7%, 대학원 석사가 8.2% 등의 나타났고 가정이 결손된 경우 '4년제 대학'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이 18.1%, '고등학교 이하'가 15.4%로 나타나 가정의 결손여부에 따라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 경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표 3>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 분석

가정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비결손 가정	67 (3.8)	171 (9.7)	1256 (71.0)	145 (8.2)	130 (7.3)	1769 (100.0)
결손 가정	28 (15.4)	33 (18.1)	107 (58.8)	7 (3.8)	7 (3.8)	182 (100.0)
전체	95 (4.9)	204 (10.5)	1363 (69.9)	152 (7.8)	137 (7.0)	1951 (100.0)

df=4, $\chi^2=67.30^{**}$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가정이 결손되지 않은 경우 '일반고'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실

업고'가 9.9%, '결정못함'이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이 결손된 경우 '일반고'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업고'가 20.3%, '결정 못함'이 15.4%로 나타나 가정의 결손여부에 따라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경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표 4>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분석

가정 \ 학생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고	실업고	특성화고	진학 안함	결정 못함	전체
비결손 가정	1267 (71.6)	94 (5.3)	68 (3.8)	175 (9.9)	24 (1.4)	0 (0.0)	141 (8.0)	1769 (100.0)
결손 가정	95 (52.2)	4 (2.2)	13 (7.1)	37 (20.3)	5 (2.7)	0 (0.0)	28 (15.4)	182 (100.0)
전체	1362 (69.8)	98 (5.0)	81 (4.2)	212 (10.9)	29 (1.5)	0 (0.0)	169 (8.7)	1951 (100.0)

df=4, $\chi^2=45.60^{**}$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적어지는 반면,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한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분석

아버지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무학	0 (0.0)	0 (0.0)	4 (100.0)	0 (0.0)	0 (0.0)	4 (100.0)
초등학교	3 (3.8)	21 (26.3)	52 (65.0)	1 (1.3)	3 (3.8)	80 (100.0)
중학교	5 (2.5)	40 (19.6)	141 (69.1)	6 (2.9)	12 (5.9)	204 (100.0)
고등학교	6 (0.6)	83 (8.8)	659 (69.8)	49 (5.2)	147 (15.6)	944 (100.0)
전문대학	0 (0.0)	6 (5.4)	71 (64.0)	9 (8.1)	25 (22.5)	111 (100.0)
4년제 대학	1 (0.2)	5 (1.2)	203 (49.3)	63 (15.3)	140 (34.0)	412 (100.0)
대학원(석사)	0 (0.0)	0 (0.0)	19 (36.5)	5 (9.6)	28 (53.8)	52 (100.0)
대학원(박사)	0 (0.0)	0 (0.0)	2 (11.1)	1 (5.6)	15 (83.3)	18 (100.0)
전체	15 (0.8)	155 (8.5)	1151 (63.1)	134 (7.3)	370 (20.3)	1825 (100.0)

df=28, $\chi^2=343.14^{**}$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전문대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 분석

아버지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무학	2 (50.0)	0 (0.0)	2 (50.0)	0 (0.0)	0 (0.0)	4 (100.0)
초등학교	10 (12.5)	14 (17.5)	50 (62.5)	3 (3.8)	3 (3.8)	80 (100.0)
중학교	17 (8.3)	40 (19.6)	125 (61.3)	16 (7.8)	6 (2.9)	204 (100.0)
고등학교	43 (4.6)	110 (11.7)	680 (72.0)	60 (6.4)	51 (5.4)	944 (100.0)
전문대학	1 (0.9)	6 (5.4)	84 (75.7)	8 (7.2)	12 (10.8)	111 (100.0)
4년제 대학	7 (1.7)	9 (2.2)	306 (74.3)	50 (12.1)	40 (9.7)	412 (100.0)
대학원(석사)	0 (0.0)	2 (3.8)	29 (55.8)	7 (13.5)	14 (26.9)	52 (100.0)
대학원(박사)	0 (0.0)	0 (0.0)	10 (55.6)	4 (22.2)	4 (22.2)	18 (100.0)
전체	80 (4.4)	181 (9.9)	1286 (70.5)	148 (8.1)	130 (7.1)	1825 (100.0)

df=28, $\chi^2=187.7^{**}$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일반고’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실업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특목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분석

아버지 \ 학생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고	실업고	특성화고	진학 안함	결정 못함	전체
무학	1 (25.0)	0 (0.0)	1 (25.0)	1 (25.0)	0 (0.0)	0 (0.0)	1 (25.0)	4 (100.0)
초등학교	45 (56.3)	0 (0.0)	4 (5.0)	18 (22.5)	1 (1.3)	0 (0.0)	12 (15.0)	80 (100.0)
중학교	127 (62.3)	2 (1.0)	9 (4.4)	41 (20.1)	5 (2.5)	0 (0.0)	20 (9.8)	204 (100.0)
고등학교	675 (71.5)	29 (3.1)	36 (3.8)	107 (11.3)	11 (1.2)	0 (0.0)	86 (9.1)	944 (100.0)
전문대학	79 (71.2)	5 (4.5)	7 (6.3)	9 (8.1)	2 (1.8)	0 (0.0)	9 (8.1)	111 (100.0)
4년제 대학	311 (75.5)	47 (11.4)	15 (3.6)	12 (2.9)	6 (1.5)	0 (0.0)	21 (5.1)	412 (100.0)
대학원(석사)	42 (80.8)	5 (9.6)	2 (3.8)	1 (1.9)	1 (1.9)	0 (0.0)	1 (1.9)	52 (100.0)
대학원(박사)	12 (66.7)	5 (27.8)	0 (0.0)	0 (0.0)	0 (0.0)	0 (0.0)	1 (5.6)	18 (100.0)
전체	1292 (70.8)	93 (5.1)	74 (4.1)	189 (10.4)	26 (1.4)	0 (0.0)	151 (8.3)	1825 (100.0)

df=35, $\chi^2=163.12^{**}$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적어지는 반면,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한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분석

어머니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무학	0 (0.0)	1 (25.0)	3 (75.0)	0 (0.0)	0 (0.0)	4 (100.0)
초등학교	4 (4.1)	27 (27.8)	62 (63.9)	2 (2.1)	2 (2.1)	97 (100.0)
중학교	9 (2.9)	38 (12.4)	232 (75.8)	7 (2.3)	20 (6.5)	306 (100.0)
고등학교	3 (0.3)	89 (7.8)	737 (64.9)	85 (7.5)	222 (19.5)	1136 (100.0)
전문대학	0 (0.0)	3 (4.5)	34 (51.5)	8 (12.1)	21 (31.8)	66 (100.0)
4년제 대학	1 (0.5)	0 (0.0)	95 (43.8)	31 (14.3)	90 (41.5)	217 (100.0)
대학원(석사)	0 (0.0)	0 (0.0)	8 (29.6)	4 (14.8)	15 (55.6)	27 (100.0)
대학원(박사)	0 (0.0)	0 (0.0)	1 (12.5)	0 (0.0)	7 (87.5)	8 (100.0)
전체	17 (0.9)	158 (8.5)	1172 (63.0)	137 (7.4)	377 (20.3)	1861 (100.0)

df=28, $\chi^2=300.97^*$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전문대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 분석

어머니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무학	0 (0.0)	1 (25.0)	3 (75.0)	0 (0.0)	0 (0.0)	4 (100.0)
초등학교	10 (10.3)	17 (17.5)	60 (61.9)	6 (6.2)	4 (4.1)	97 (100.0)
중학교	18 (5.9)	50 (16.3)	212 (69.3)	17 (5.6)	9 (2.9)	306 (100.0)
고등학교	47 (4.1)	111 (9.8)	822 (72.4)	80 (7.0)	76 (6.7)	1136 (100.0)
전문대학	1 (1.5)	2 (3.0)	48 (72.7)	9 (13.6)	6 (9.1)	66 (100.0)
4년제 대학	2 (0.9)	3 (1.4)	150 (69.1)	32 (14.7)	30 (13.8)	217 (100.0)
대학원(석사)	0 (0.0)	0 (0.0)	19 (70.4)	4 (14.8)	4 (14.8)	27 (100.0)
대학원(박사)	0 (0.0)	0 (0.0)	4 (50.0)	1 (12.5)	3 (37.5)	8 (100.0)
전체	78 (4.2)	184 (9.9)	1318 (70.8)	149 (8.0)	132 (7.1)	1861 (100.0)

df=28, $\chi^2=120.43^{**}$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일반고'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실업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특목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분석

어머니 \ 학생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고	실업고	특성화고	진학 안함	결정 못함	전체
무학	2 (50.0)	1 (25.0)	0 (0.0)	1 (25.0)	0 (0.0)	0 (0.0)	0 (0.0)	4 (100.0)
초등학교	56 (57.7)	1 (1.0)	4 (4.1)	22 (22.7)	1 (1.0)	0 (0.0)	13 (13.4)	97 (100.0)
중학교	202 (66.0)	8 (2.6)	11 (3.6)	51 (16.7)	8 (2.6)	0 (0.0)	26 (8.5)	306 (100.0)
고등학교	829 (73.0)	43 (3.8)	44 (3.9)	110 (9.7)	14 (1.2)	0 (0.0)	96 (8.5)	1136 (100.0)
전문대학	52 (78.8)	1 (1.5)	7 (10.6)	4 (6.1)	0 (0.0)	0 (0.0)	2 (3.0)	66 (100.0)
4년제 대학	156 (71.9)	34 (15.7)	8 (3.7)	2 (0.9)	3 (1.4)	0 (0.0)	14 (6.5)	217 (100.0)
대학원(석사)	20 (74.1)	5 (18.5)	0 (0.0)	0 (0.0)	0 (0.0)	0 (0.0)	2 (7.4)	27 (100.0)
대학원(박사)	6 (75.0)	2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00.0)
전체	1323 (71.1)	95 (5.1)	74 (4.0)	190 (10.2)	26 (1.4)	0 (0.0)	153 (8.2)	1861 (100.0)

df=35, $\chi^2=163.12^{**}$

그 다음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나,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한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1>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분석

가족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하 (하위 25% 이하)	22 (3.1)	108 (15.4)	478 (68.0)	26 (3.7)	69 (9.8)	703 (100.0)
중하 (하위 26~50%이하)	3 (1.1)	28 (9.9)	196 (69.0)	15 (5.3)	42 (14.8)	284 (100.0)
중상 (상위 25~50%미만)	1 (0.2)	32 (6.7)	303 (63.7)	36 (7.6)	101 (21.8)	476 (100.0)
상 (상위 25% 초과)	0 (0.0)	9 (1.9)	237 (50.4)	63 (13.4)	161 (34.3)	470 (100.0)
전체	26 (1.3)	177 (9.2)	1214 (62.8)	140 (7.2)	376 (19.5)	1933 (100.0)

df=12, $\chi^2=233.20^{**}$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하위 50%이하인 경우 '전문대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상위 25%이하인 경우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2>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교육포부 분석

가족 \ 학생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전체
하 (하위 25% 이하)	69 (9.8)	106 (15.1)	449 (63.9)	45 (6.4)	34 (4.8)	703 (100.0)
중하 (하위 26~50%이하)	9 (3.2)	40 (14.1)	199 (70.1)	15 (5.3)	21 (7.4)	284 (100.0)
중상 (상위 25~50%미만)	7 (1.5)	42 (8.8)	357 (75.0)	44 (9.2)	26 (5.5)	476 (100.0)
상 (상위 25% 초과)	9 (1.9)	16 (3.4)	343 (73.0)	46 (9.8)	56 (11.9)	470 (100.0)
전체	94 (4.9)	204 (10.6)	1348 (69.7)	150 (7.8)	137 (7.1)	1933 (100.0)

df=12, $\chi^2=134.02^{**}$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일반고’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실업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특목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3>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 분석

가족 \ 학생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고	실업고	특성화고	진학 안함	결정 못함	전체
하 (하위25% 이하)	449 (63.9)	12 (1.7)	35 (5.0)	120 (17.1)	12 (1.7)	0 (0.0)	75 (10.7)	703 (100.0)
중하 (하위26~50%이하)	194 (68.3)	10 (3.5)	10 (3.5)	34 (12.0)	5 (1.8)	0 (0.0)	31 (10.9)	284 (100.0)
중상 (상위 25~50%미만)	360 (75.6)	24 (5.0)	14 (2.9)	40 (8.4)	9 (1.9)	0 (0.0)	29 (6.1)	476 (100.0)
상 (상위 25% 초과)	346 (73.6)	51 (10.9)	21 (4.5)	17 (3.6)	3 (0.6)	0 (0.0)	32 (6.8)	470 (100.0)
전체	1349 (69.8)	97 (5.0)	80 (4.1)	211 (10.9)	29 (1.5)	0 (0.0)	167 (8.6)	1933 (100.0)

df=15, $\chi^2=122.62^{**}$

나.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직업포부와의 관계분석

학생의 직업포부와 부모의 학생에 대한 직업기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은데, 먼저 부모의 학생에 대한 직업기대수준을 보면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 관련직’이 13.8%,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료 관련직’, ‘화학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직업포부를 보면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이 18.8%, ‘보건·의료 관련직’이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료 관련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직업포부와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직업기대를 직업분류상에 볼 때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의 경우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밖에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의 경우 62.0%,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의 경우 57.9%, ‘보건·의료 관련직’의 경우 5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의 직업포부와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직업기대가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체적으로 학생의 직업포부와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직업기대가 일정비율 정도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학생의 직업포부와 부모의 학생에 대한 직업기대 비교 분석

학생 부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전체	
1	12 (17.9)	2 (3.0)	0 (0.0)	13 (19.4)	9 (13.4)	6 (9.0)	0 (0.0)	13 (19.4)	0 (0.0)	1 (1.5)	1 (1.5)	3 (4.5)	0 (0.0)	0 (0.0)	2 (3.0)	0 (0.0)	0 (0.0)	0 (0.0)	0 (0.0)	3 (4.5)	1 (1.5)	0 (0.0)	0 (0.0)	1 (1.5)	0 (0.0)	67 (5.5)	
2	8 (5.1)	17 (10.8)	3 (1.9)	38 (24.1)	8 (5.1)	12 (7.6)	1 (0.6)	31 (19.6)	1 (0.6)	0 (0.0)	0 (0.0)	14 (8.9)	10 (6.3)	4 (2.5)	1 (0.6)	0 (0.0)	0 (0.0)	0 (0.0)	0 (0.0)	4 (2.5)	2 (1.3)	0 (0.0)	0 (0.6)	1 (0.6)	3 (1.9)	0 (0.0)	158 (13.0)
3	0 (0.0)	0 (0.0)	2 (3.0)	0 (0.0)	0 (0.0)	0 (0.0)	0 (0.0)	2 (3.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0.3)
4	18 (4.4)	6 (1.5)	0 (0.0)	239 (57.9)	12 (2.9)	30 (7.3)	1 (0.2)	56 (13.6)	0 (0.0)	1 (0.2)	2 (0.5)	22 (5.3)	5 (1.2)	4 (1.0)	2 (0.5)	0 (0.0)	1 (0.2)	0 (0.0)	0 (0.0)	0 (1.2)	5 (0.5)	2 (0.2)	1 (0.5)	2 (1.0)	4 (1.0)	0 (0.0)	413 (34.1)
5	6 (7.2)	0 (0.0)	0 (0.0)	14 (16.9)	39 (47.0)	4 (4.8)	0 (0.0)	3 (3.6)	1 (1.2)	0 (0.0)	2 (2.4)	6 (7.2)	1 (1.2)	4 (4.8)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	0 (0.0)	0 (0.0)	0 (0.0)	2 (2.4)	0 (0.0)	83 (6.8)	
6	8 (4.8)	0 (0.0)	2 (1.2)	29 (17.4)	3 (1.8)	87 (52.1)	0 (0.0)	11 (6.6)	1 (0.6)	2 (1.2)	1 (0.6)	6 (7.2)	3 (1.8)	5 (3.0)	0 (0.0)	0 (0.0)	1 (0.6)	0 (0.0)	0 (0.0)	6 (3.6)	1 (0.6)	0 (0.0)	1 (0.6)	1 (0.6)	0 (0.0)	167 (13.8)	
7	1 (4.8)	1 (4.8)	0 (0.0)	2 (9.5)	1 (4.8)	1 (4.8)	4 (19.0)	5 (23.8)	0 (0.0)	0 (0.0)	0 (0.0)	3 (14.3)	2 (9.5)	1 (4.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1 (1.7)
8	3 (2.9)	3 (2.9)	0 (0.0)	8 (7.7)	1 (1.0)	5 (4.8)	1 (1.0)	80 (76.9)	0 (0.0)	0 (0.0)	0 (1.9)	2 (0.0)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4 (8.6)
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71.4)	0 (0.0)	0 (0.0)	0 (14.3)	0 (0.0)	0 (0.0)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0.6)
1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5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2)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2)
12	3 (6.0)	1 (2.0)	0 (0.0)	4 (8.0)	1 (2.0)	1 (2.0)	0 (0.0)	5 (10.0)	0 (0.0)	1 (2.0)	1 (2.0)	1 (2.0)	31 (62.0)	0 (0.0)	2 (4.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0 (4.1)
13	0 (0.0)	0 (0.0)	0 (0.0)	1 (5.9)	0 (0.0)	0 (0.0)	0 (0.0)	1 (5.9)	0 (0.0)	0 (0.0)	0 (0.0)	0 (0.0)	15 (88.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7 (1.4)
14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	3 (21.4)	0 (0.0)	0 (0.0)	0 (0.0)	0 (0.0)	0 (0.0)	10 (71.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2)
15	0 (0.0)	1 (4.2)	0 (0.0)	4 (16.7)	4 (16.7)	1 (4.2)	1 (4.2)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25.0)	0 (0.0)	1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8.3)	24 (2.0)	
1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9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0.2)
20	0 (0.0)	0 (0.0)	0 (0.0)	4 (16.0)	0 (0.0)	0 (0.0)	0 (0.0)	4 (16.0)	0 (0.0)	0 (0.0)	0 (0.0)	0 (16.0)	0 (0.0)	0 (0.0)	1 (4.0)	0 (0.0)	12 (48.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5 (2.1)
21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7.5)	0 (0.0)	0 (0.0)	0 (0.0)	0 (0.0)	4 (0.3)
22	1 (2.0)	0 (0.0)	0 (0.0)	2 (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0.3)
2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1)	
24	2 (10.5)	0 (0.0)	0 (0.0)	1 (5.3)	0 (0.0)	3 (15.8)	0 (0.0)	3 (15.8)	0 (0.0)	0 (0.0)	0 (0.0)	1 (5.3)	1 (5.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0 (0.0)	0 (0.0)	6 (31.6)	0 (0.0)	19 (1.6)
25	1 (4.5)	0 (0.0)	0 (0.0)	5 (22.7)	2 (9.1)	1 (4.5)	0 (0.0)	5 (22.7)	0 (0.0)	0 (0.0)	0 (0.0)	5 (22.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9.1)	0 (0.0)	2 (4.5)	1 (4.5)	0 (0.0)	0 (0.0)	22 (1.8)
전체	65 (5.4)	31 (2.6)	7 (0.6)	365 (30.1)	81 (6.7)	151 (12.5)	8 (0.7)	228 (18.8)	8 (0.7)	5 (0.4)	9 (0.7)	99 (8.2)	38 (3.1)	32 (2.6)	14 (1.2)	0 (0.0)	2 (0.2)	0 (0.0)	0 (0.0)	33 (2.7)	11 (0.9)	1 (0.1)	6 (0.5)	18 (1.5)	0 (0.0)	1214 (100.0)	

주: 1= 관리직, 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 금융·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6= 보건·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25= 전업주부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이 가정이 결손되지 않은 경우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이 결손된 경우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 분석

가정 \ 학생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기타	전체
비결손 가정	344 (30.7)	145 (12.9)	195 (17.4)	437 (39.0)	1121 (100.0)
결손 가정	24 (23.3)	6 (5.8)	37 (35.9)	36 (35.0)	103 (100.0)
전체	368 (30.1)	151 (12.3)	232 (19.0)	473 (38.6)	1224 (100.0)

df=3, $\chi^2=23.06^{**}$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대학원 박사인 경우를 제외한 모두에서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아질 수록 ‘보건·의료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에 대한 직업적 열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 분석

아버지 \ 학생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기타	전체
무학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초등학교	17 (32.7)	2 (3.8)	9 (17.3)	24 (46.2)	52 (100.0)
중학교	36 (28.8)	9 (7.2)	22 (17.6)	58 (46.4)	125 (100.0)
고등학교	181 (31.7)	65 (11.4)	106 (18.6)	219 (38.4)	571 (100.0)
전문대학	24 (33.8)	11 (15.5)	9 (12.7)	27 (38.0)	71 (100.0)
4년제 대학	77 (27.9)	52 (18.8)	45 (16.3)	102 (37.0)	276 (100.0)
대학원(석사)	12 (29.3)	6 (14.6)	10 (24.4)	13 (31.7)	41 (100.0)
대학원(박사)	2 (18.2)	2 (18.2)	5 (45.5)	2 (18.2)	11 (100.0)
전체	351 (30.5)	147 (12.8)	206 (17.9)	445 (38.7)	1149 (100.0)

df=21, $\chi^2=34.16^*$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인 경우 ‘보건·의료 관련직’에 대한 직업적 열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 분석

어머니 \ 학생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기타	전체
무학	0 (0.0)	2 (66.7)	1 (33.3)	0 (0.0)	3 (100.0)
초등학교	18 (31.0)	3 (5.2)	9 (15.5)	28 (48.3)	58 (100.0)
중학교	52 (27.1)	12 (6.3)	36 (18.8)	92 (47.9)	192 (100.0)
고등학교	223 (31.7)	84 (11.9)	130 (18.5)	267 (37.9)	704 (100.0)
전문대학	18 (39.1)	11 (23.9)	6 (13.0)	11 (23.9)	46 (100.0)
4년제 대학	40 (26.7)	33 (22.0)	26 (17.3)	51 (34.0)	150 (100.0)
대학원(석사)	8 (42.1)	1 (5.3)	4 (21.1)	6 (31.6)	19 (100.0)
대학원(박사)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전체	360 (30.6)	147 (12.5)	213 (18.1)	456 (38.8)	1176 (100.0)

df=21, $\chi^2=49.64^{**}$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고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보건·의료 관련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18>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직업포부 분석

가족 \ 학생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기타	전체
하 (하위 25% 이하)	122 (27.7)	39 (8.9)	95 (21.6)	184 (41.8)	440 (100.0)
중하 (하위 26~50%이하)	62 (35.0)	18 (10.2)	29 (16.4)	68 (38.4)	177 (100.0)
중상 (상위 25~50%미만)	107 (35.4)	32 (10.6)	47 (15.6)	116 (38.4)	302 (100.0)
상 (상위 25% 초과)	74 (24.8)	61 (20.5)	60 (20.1)	103 (34.6)	298 (100.0)
전체	365 (30.0)	150 (12.3)	231 (19.0)	471 (38.7)	1217 (100.0)

df=9, $\chi^2=36.30^{**}$

2.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의식과의 관계분석

먼저,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이 가정이 결손되지 않은 경우 3.29로 가정이 결손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t검증 결과 이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19> 가정 결손여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 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비결손 가정	1769	3.29	0.57	0.97
결손 가정	182	3.24	0.62	
전체	1951	3.28	0.57	-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대학원 석사인 경우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무학인 경우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검증 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학생의 진로의식의 차이가 나타나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대학원 석사인 경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학생의 진로의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인 경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등학교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0>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사후검증								
					(1)	(2)	(3)	(4)	(5)	(6)	(7)	(8)	
무학 (1)	4	3.04	0.28	F(7,1817)=5.00**									
초등학교 (2)	80	3.26	0.64										
중학교 (3)	204	3.20	0.58									*	
고등학교 (4)	944	3.24	0.56							*	*		
전문대학 (5)	111	3.31	0.60										
4년제 대학 (6)	412	3.37	0.52					*					
대학원(석사) (7)	52	3.57	0.55				*	*					
대학원(박사) (8)	18	3.39	0.65										

주: *는 해당되는 집단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대학원 석사인 경우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대학원 박사인 경우 3.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사후검증								
					(1)	(2)	(3)	(4)	(5)	(6)	(7)	(8)	
무학 (1)	4	3.29	0.64	F(7,1853)=4.69**									
초등학교 (2)	97	3.28	0.58										
중학교 (3)	306	3.23	0.61							*			
고등학교 (4)	1136	3.25	0.55							*			
전문대학 (5)	66	3.41	0.57										
4년제 대학 (6)	217	3.46	0.57				*	*					
대학원(석사) (7)	27	3.47	0.66										
대학원(박사) (8)	8	3.10	0.60										

주: *는 해당되는 집단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F검증 결과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학생의 진로의식의 차이가 나타나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4년제 대학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상위 25%이하인 경우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하위 25~50%인 경우 3.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검증 결과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나타나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상위 25%이하인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하위 50%이하인 경우에 비교하여 볼 때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2>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사후검증				
					(1)	(2)	(3)	(4)	
하 (하위 25% 이하)	(1)	703	3.26	0.57	F(3, 1929) = 7.79**				*
중하 (하위 26~50%이하)	(2)	284	3.18	0.57					*
중상 (상위 25~50%미만)	(3)	476	3.28	0.56					
상 (상위 25% 초과)	(4)	470	3.38	0.58		*	*		

주: *는 해당되는 집단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생과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과 학생의 대화가 ‘하루 2시간 이상’인 경우 3.38로 학생의 진로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과 학생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인 경우 3.18로 학생의 진로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검증 결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3> 학생과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거의 못함	138	3.18	0.57	F(4, 1946) = 4.17**
하루 30분 미만	712	3.24	0.57	
하루 30분~1시간 미만	694	3.32	0.55	
하루 1~2시간 미만	272	3.30	0.58	
하루 2시간 이상	135	3.38	0.61	

주: ** p < 0.01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 정도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이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검증 결과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 정도에 따라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나타나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부모와의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유무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사후검증				
					(1)	(2)	(3)	(4)	(5)
경험 없음 (1)	113	2.96	0.53	F(4, 1946)= 45.46**			*	*	*
경험 1 (2)	185	2.98	0.52				*	*	*
경험 2 (3)	382	3.20	0.56		*	*			*
경험 3 (4)	621	3.28	0.52		*	*			*
경험 4 (5)	650	3.47	0.57		*	*	*	*	

주 1) 경험 1=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중 하나만 경험함. 경험 2=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중 두 가지만 경험함. 경험 3= 경험 1=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중 세 가지를 경험함, 경험 4= 경험 1=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직업·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모두를 경험함.

주 2) *는 해당되는 집단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의 학생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검증 결과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에 따라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나타나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의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사후검증				
					(1)	(2)	(3)	(4)	(5)
고등학교 이하 (1)	26	2.94	0.63	F(4, 1946)= 9.93**				*	*
전문대학 (2)	178	3.13	0.62					*	*
4년제 대학 (3)	1226	3.27	0.55						*
대학원(석사) (4)	140	3.39	0.52		*	*			
대학원(박사) (5)	381	3.38	0.59		*	*	*		

주: *는 해당되는 집단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 여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학생 희망직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학생의 진로의식이 평균 3.35로 학생 희망직업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t검증 결과 이들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6> 학생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 여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 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알고 있음	1098	3.35	0.57	6.00**
모름	853	3.19	0.55	

주: ** p < 0.01

학생의 진로관련 지지대상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이 학생의 진로관련 지지대상이 '어머니'인 경우 학생의 진로의식이 평균 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진로관련 지지대상이 '부모님 이외의 기타' 또는 '없음' 경우 학생의 진로의식이 평균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F검증 결과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 학생의 진로관련 지지대상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아버지	443	3.28	0.57	F(3,1947)= 0.39
어머니	632	3.30	0.57	
기타	540	3.27	0.58	
없음	336	3.27	0.56	

마지막으로, 부모의 직업가치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이 부모가 '내적 직업가치관'을 가진 경우 학생의 진로의식이 부모가 '외적 직업가치관'을 가진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t검증 결과 이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8> 부모의 직업가치관에 따른 학생의 진로의식 차이 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외적 직업가치	1046	3.24	0.57	-3.80**
내적 직업가치	905	3.33	0.57	

주: ** p < 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가족관련 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결손 여부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학생의 교육포부,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 등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손 가정의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생 또한 교육포부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

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로의 진학계획과 학생의 직업포부도 결손되지 않은 가정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결손 여부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결손 가정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결손가정의 84.1%가 하위 25%이하의 경제적 지위에 해당됨) 학생의 진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고 학생 또한 이를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학생의 교육포부,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 진로의식에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 또한 교육포부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며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 진로의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먼저 부모가 중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 설정에 역할모델(role model)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경제적 자본의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것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결되어 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 설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학생의 교육포부,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 진로의식에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 또한 교육포부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며 고등학교 진학계획, 학생의 직업포부, 진로의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정혜정, 2004; Trusty et al,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학생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학생보다 미래의 학업 및 직업에 대한 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의식 수준 또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진로의식 태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생과 가족의 의사소통 정도가 많고 진로관련 의사소통 경험을 많이 하며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의 의사소통 및 진로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수록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박진채, 2004; Fisher & Griggs, 1995; Schulthesiss et al, 2001; Young et al, 1991; Young et al,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가족의 지지와 부모와의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진로발달을 촉진시킴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모의 학생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고 부모가 내적 직업가치관을 가질수록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학생의 진로관련 관심을 지원해 주며 내적 직업가치관을 학생에게 심어주는 것이 진로의식 수준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2. 제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추후 연구와 진로교육 정책과 관련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이외에 각각의 발달단계별로 가족관련변인이 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구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진로교육 연구에 있어 가족관련변인에 관한 탐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변인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한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대학생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발달이론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선택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련변인과 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구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 심리적 독립,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가족 갈등, 가족의 권력구조 등 가족관련변인 중 과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에 이와 관련된 변인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적 특성의 종합적인 고찰은 가족관련변인이 진로발달 관련 구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에 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의 구조적·과정적 특성은 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알고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을 지대하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을 기초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선택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고향자(2003). 대학생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221-239.
- 강차연, 박경(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51-69.
- 고향자, 강혜원(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6(1), 277-293.
- 김민경(2003).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7, 80-100.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3).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인간이해**, 22, 97-116.
- 김재은(199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 문승태, 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205-220.
-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141-160.
- 박진채, 홍경자(2004).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1), 37-52.
- 양종국, 지용근(200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45-62.
- 이상길(2004).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6(3), 435-448
- 이상길(2003). 가족체계의 성격과 남고생의 진로태도성숙. **진로교육연구**, 16(2), 123-140.
- 이상길(2002). 어머니와의 축진적 의사소통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일반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9), 127-141
- 이재창, 김수리(2001).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5, 75-92.
- 이종범(2005).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숙, 조한익(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희영(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1(2), 239-259.
- 정철영(1999). 진로지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편), **직업교육훈련 대사전**.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외 18인. (2004).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정혜정, 최인실(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70-790.
- 지용근(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1), 106-122.
- 최동선, 정철영(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545-559.
- 최인화(2003).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7, 60-80.
- 최수정(2005). **가족변인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구동향**.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 세미나 발표자료.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 Bratcher, W. E. (1982).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career selection: A family system perspective. *Th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87-91.
- Brunch, M. A., Giordano, S., & Pearl, L (1986). Differences between fearful and self-conscious shy subtype in background and current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172-186.
- Fisher, T. A., & Griggs, M. B. (1995).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2), 57-74.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land, J. L.,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2nd ed)*. Odessa, FL: Psychology Assessment Resources.

- Isaacson, L. E., & Brown, D.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Lopez, F. G. (1993). Self-concept measures of parents-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ive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560-569.
- Osipow, S. (1974).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chultheiss, D. E. P., Kress, H. M., & Manzi, A.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39.
- Stright, A. d., Neitzel, C., Sears, K. G., & Hoke-sinex, L. (2001). Instruction begins in the home: Relations between parental instructio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in the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 Stumpf, S. A., & Colarelli, S. M. (1980). Career exploration: Development of dimensions and some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47*, 979-988.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In D. Brown & L. Brooke(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Trusty, J., Watts, R. E., & Erdman, P. (1997). Predictors of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teen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3*, 189-201.
- Whiston. S. C., & Keller, B. K. (2004).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4)*, 493-568.
- Young, R., Friesen, J. D., & Borycki, B. (1994). Narrative structure and parental influence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ce, 17*, 173-191.
- Zunker,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ing (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